

I. 개 요

1. 일시 : 2009. 06. 05 (금) 16:00~18:00

2. 장소 : 기획재정부 6층 국제회의실

3. 발표자 : 이대기 박사 (금융연구원)

4. 참석자

권 율 팀장 (KIEP ODA팀)

정자원 부연구위원 (KIEP ODA팀)

정지선 연구원(KIEP ODA팀)

김연실 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

강순기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MDB협력팀장)

장홍범 연구실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실장)

김윤경 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강호 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배준형 사무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황희정 사무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김연수 서기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황병하 팀장 (기획재정부 IMF팀)

4. 제 목

- "최근 국제금융기구 개혁 논의"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개편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 G-20 정상들은 IMF의 쿼터 개혁에 합의한 바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증진된 위상을 고려하여 이들의 쿼터 확대에 동의하고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IMF 쿼터 개혁을 2011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합의 함.

- 2008년 3월 28일 IMF 이사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쿼터개혁안에 따르면 쿼터 공식의 변수의 비중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

$$\text{Quota} = (0.5Y + 0.3O + 0.15V + 0.05R)^{0.95}$$

Y: 최근 3년간 연평균 GDP

O: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지급 및 수입

V: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의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R: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

0/95: 조정계수

-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GDP는 '시장환율GDP'와 'PPP(Purchasing Power Parity)GDP'를 6:4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PPP GDP 및 조정계수(0.95)는 우선 20년간 사용한 후 계속 사용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 또한 계산쿼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경제적 위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도 및 변동성 변수 개념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향후 쿼타공식에 반영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쿼타 및 투표권의 비중이 현재와 비교시 각각 0.067%p 및 0.03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쿼타: 1.346% → 1.413%, 투표권: 1.329% → 1.365%
-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호주를 추월하여 소속그룹 내에서 쿼타 및 투표권 비중이 가장 높게 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쿼타증가분 439.1백만 SDR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함.
- 우리나라는 1971년 11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종전에는 정부예산으로 납입하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한국은행이 납부하고 있음.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III. 주요 논의사항

-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는 우리나라의 출자·출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의 대부분은 외환보유고로 납입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납입금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향후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납입금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동시에 납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확충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쿼타 및 투표권의 증가도 중요하나, 국제금융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국의 대책마련도 시급함.
- 인력파견 확대, 조달시장의 활용,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 아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임.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IMF의 SDR을 기축통화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2009년 3월에는 IMF가 처음으로 채권발행(SDR 표시)을 통한 재원마련 案을 내놓은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 등은 매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또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SDR을 2500억 달러만큼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합의함.
- 이에 우리나라는 IMF의 SDR이 기축통화로 격상된다면, 그 경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